재일제주인 시 연구

최종환

1. 머리말

본 연구는 총련계 '재일제주인 문학'의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재일동포 문학' 연구를 다각화시켜 보려는 한 시도이다. 주지되듯 재일동포 문학 연구는 이른바 '교계지적 사유'의 이점을 통해 통일문학사나 한민족문학사의 전망(展望)을 타진키 위한 목적에서도 진행돼 왔다. 교계지적 사유란 특정 국가의 네이션에 완전히 강박되지 않은 주체의 사유로서, 본고의 관심사와 결합하면 원격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사유라 할 수 있다. 그 사유의 유연성은 분단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통일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쓰인 총련계 문학의 경우에는 북측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경사를 보여 왔기에 사실상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그간 논자들이 상기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총련계 문학이 내장한 통일문학사적 가능성을 만족할만하게 증명해 내지 못한 것도 이 난맥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 하는 '재일제주인 시'는 얼마간 그 한계 지형의 극복이 기대되는 텍스트라 생각된다. 그 점은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이 총련의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이하:문예동) 내에서 다소의 변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관련돼 있다. 재일제주

인은 해방 이전 일본에 끌려갔거나, 그 이후 '4.3' 기억을 뒤로 하고 도일(渡日)하여 삶의 기반을 다져온 이들이다. 그들에게 4.3은 악몽이었으며 집단 무의식을 형성시킬 정도의 후유증이었기에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도 그들만의 문학적 자의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계에선 아직까지도 '총련계 재일제주인시'를 본격적(本格的)으로 다룬 논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일제주인의 문학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1] 그러나 그들의 소외돼 온 '한글 시'에 초점을 두거나, '문예동'의 정체성에 환원되지 않는 내적 논리를 밝힌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이 테마의 독립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문예동계 재일제주인 시'의 논리를 타진하는 것은 본 논문의 시도가 최초인 셈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재일제주인의 일단의 정체성이 '문예동'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총련' 시와의 역학성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재외동포문학의 경우가 그렇듯 재일동포 문학 또한 '소외'의 체험으로부터 작성된 것이다. 재일동포에게 해방 이전과 그 이후의 고통이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 질고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된 남측 정부로부터의 소외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재일제주인'은 거기에 한 겹의 소외가 더 겹쳐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것은 '본국'과 '일본', '뭍'으로부터의 소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외의식의 기층엔 '섬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일례로 문예동의 시 일반이 4.19나 5.18, 한일회담 등에 대한 시선을

1) 해방 후에 창작된 '재일제주인의 한글 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재일제주인 문학 관련 논문 중엔, 해방 이전의 재일제주인의 시를 산문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 부분 언급한 강영기의 「문학에 나타난 '재일제주인' 인식 고찰」(『한일민족문제연구』 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과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현대문학이론연구』 3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등이 눈이 띈다. 이 중 후자의 논문은 문학에 나타난 '제주시(市)'의 재현과 의미를 다룬 의미 있는 논문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문학공간으로서의 제주'라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제주인 시의 내적 논리에 두어진 것은 아니다. 본고의 시선과 관련하여 뚜렷한 언급을 보여준 기존의 결과물은 김환기의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선 '재일 문학'이 제주 4.3을 어떻게 보아내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산문문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비제주인 시인 '丁章'의 시 한 편 정도가 언급돼 있을 뿐이며(김환기, 「재일 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일본학보』 69집, 한국일본학회, 2006. 241-258면.), '재일제주인의 한글 시'에 대한 논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관심사로 가진 것임에 비해, 제주 4.3을 형상화한 시의 거개는 제주도 본적을 가지고 있는 시인에게서 나온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것은 4.3의 참상을 실제 체험했거나, 목도한 2세들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텍스트의 징후성이 강하게 발현돼 있다.

사실 '제주 섬'의 기억과 관련된 '재일제주인의 의식'이란 것 또한 '여타의 재일동포들'이 느껴 온 상황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방 직후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은 '먹고살 수단'의 문제와 민족교육에 다가온 '이승만 정부의 늑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점령군의 횡포와 그 폭거를 돕는 전후 일본의 행패까지 겹치고 있었다. 그러나 재일제주인의 경우엔 '트라우마' 하나가 더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4.3을 초래한 미군정의 횡포는 물론이고 섬주민들끼리 나누었던 살육의 기억이었다. 4.3의 트라우마가 4.19나 5.18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당시 어떠한 '선택'이 허용되지 않았던 '섬'(부락)의 환경적 조건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가계와 이웃이 실제 연루된 비극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때문에 재일제주인의 시는 그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텍스트에 다름 아니다.

4.3 이후에 제주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도일하는 길을 택하였지만 그 후에도 그 기억은 상기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와 관련된 어떤 인터뷰도 거절했다고 한다.[2] 이후 북측과 손잡게 되면서부터 재일제주인은 많은 부분 상기 기억의 검열에서 해방되게 된다. 천리마 운동을 통해 농업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있던 당시의 북측은 모든 것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4.3과 관련하여서도 재일제주인과 북측은 반제(反帝)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쌍방의 이해(利害) 하에서 재일제주인은 일본 내 총련의 조직 속

2) 유사 이래 3만 명이 학살된 전례 없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분단 이데올로기의 문제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이 금지돼 왔으며,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제주 양민들과 그 자손들은 적지 않은 후유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측 정권 하에선 4.3의 체험을 말할 경우 여기저기서 "폭도", "빨갱이 새끼"라는 식으로 날아든 폭언을 경험해야 했기에 많은 이들이 도일(渡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도일 후에도 그 끔찍한 후유증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갔다고 한다. 더욱이 오사카 근처에 모여 사는 재일제주인 2만 명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그 제주의 기억을 간직한 자들이라는 보고가 있다. 스나미 케스케, 「'죽음의 섬' 탈출해 일본에 온 '제주'의 애환」, 『민족네트워크』, 2008.5, 102-104면.

으로 편입되게 된다. 더욱이 해방 직후부터 북측이 해 주었던 물심양면의 원조는, 일본에서조차 제주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그들에게 '공화국'의 체제와 손잡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했다.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 나가사끼현 나가사끼지부 고또분회 // 다시 찾은 조국
> 이 이렇게도 귀중해 / 그 어디에 살아도 / 조국을 빛내이자는 마음이 어렸는가
> / 분회장집 문패 // 아, 일본땅 한끝에서 / 조국의 한끝을 보는구나
>
> -김정수,「일본땅 한끝에서」부분

위 재일제주인의 시에는 섬에서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했던 무의식이 엿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시가 -북측의 재외 대사관 격이었던- 총련의 '언술장' 내에서 작동하게 된 문맥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총련과의 만남은 재일제주인의 언술이 분노의 담론으로 활성화될 모종의 '계기'가 되어준 것이다. 그들 자신 총련 내의 이질적인 집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 스스로를 의탁함으로써 슬픔을 보상받고자 했던 것이다.

본고는, 상기의 문맥에서 섬에 대해 견지해 온 재일제주인의 시선이 시에 재현된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그 기억의 재현 양상을 '그들의 시선' 속에서 살펴보는 일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오상홍, 고봉전, 홍윤표, 허옥녀, 오홍심, 한룡무, 김정수, 고갑순, 김태경 등과 같은 '제일제주인'의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인식을 추체험한 강순, 허남기, 남시우, 김학렬, 김윤호, 박산운 등과 같은 비제주인의 작품도 제한적(制限的)으로 언급하였다.[3] 여기엔

3) 본고에서 밝힌 시인들의 프로필은 문예동의 김학렬 시인이 일본에서 공수해 준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문예동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재일제주인 시인으로는 오상홍(1925.9.12: 제주도 북군 구좌면 하도리 출생, 본적 동상) ; 고봉전(1925.9.30 제주도 삼도리의 사무원 가정에서 태어남, 본적 동상) ; 홍윤표(1932.2.5: 일본오사까시 출생, 본적 제주도 북군 구좌면 세화리) ; 허옥녀(1948.11.10: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남군 남원면 하례리) ; 오홍심(1941.10.19: 일본 효고현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서귀포 하효리; 한룡무(1952.7.23: 도꾜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북군 구좌면 하도리) ; 김정수(1954.11.13: 일본 千葉시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남군 성산면 란산리) ; 고갑순(1934.6.25: 일본 오사까시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제주시 일도리) 등을

첫째, 문예동에서 4.3의 기억을 언급한 시가 분량 면에서 열세란 점이 고려되었고, 둘째 남측 시단과의 시사적 연결점을 타진할 때 필요한 것이 '본적의 공유'보다는 '인식의 공유'이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4.3의 역사, 상황적 문맥에 대한 연구가 학제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축적된 만큼, 이 소논문에선 4.3의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에 보다 집중해 보고자 한다. 그간 4.3의 문학 관련 연구는 대개 남측의 소설 문학을 중심으로 되어왔기에 '재일동포의 한글 시'에 나타난 4.3의 의미를 천착하는 이 시도는 나름의 의미성을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희락(喜樂)과 트라우마로서의 섬

재일제주인의 시에서 '제주 섬'은 크게 '희락(喜樂)의 공간'과 '트라우마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실제 작품에서 두 공간은 많은 부분 혼성화돼 있다. 대체적으로 전자는 '낙원의 표상'을, 후자가 한라산 무의식과 관련한 '분노의 표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같은 측면은

① 제주 섬에서의 즐거운 기억
② 학살의 기억 및 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
③ 통일 열망

등과 같은 내면과 결합될 때 보다 뚜렷한 형상력을 확보한다. 이데올로기적 잣대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재일제주인 소설가의 경우도 언급해 함께 본다면 강태성(1953.7.1: 일본 도꾜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애월읍 하귀리) ; 리상민(1956.1.17: 도꾜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남군 중문면 중문리) ; 량우직(1928.2.16: 제주도 북군 한림읍 금릉리에서 출생, 본적 출생지와 동일) ; 박순영(1948.3.17: 도꾜에서 출생, 본적 제주도 한림면) 등이 있다.

를 대본다면 '①'과 '②, ③'이라는 구분자가 두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①은 전술한 것처럼 재일제주인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의 영역이다. 그리고 문예동 주체의 궁극 욕망인 ③은 ①과 ②를 작동시키는 내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은 ②의 트라우마를 극복케 하여 ①을 ③의 공간으로 전이시키는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미래태로서의 ③에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다.[4] 우선 제주섬을 '희락(喜樂)의 공간'으로 그리는 ①의 경우부터 살펴보자.[5]

가고 싶은 내 고향 제주도 삼양 / 소꿉시절 내 발자국 새겨 있는곳 / 파아란 바다물은 출렁 처절썩 / 어기영차 배노래가 울리군 했지 // 가고 싶은 내 고향 제주도 삼양 / 소꿉시절 내 발자국 새겨 있는곳 / 하이얀 모래밭에 딩굴던 여름 / 씨름판도 벌리고 헤염도 쳤지 // 가고 싶은 내 고향 제주도 삼양 / 소꿉시절 내

4) 제주와 관련한 문학적 인식을 보여주는 시인들은 '대체적으로' 재일동포 1세들이란 점에서 특징적이다. 세대 분류의 기준에 논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 본문에 언급한 허남기, 강순, 김학렬, 김윤호, 오상홍, 고봉전은 1920-30년대 태생이란 점에서 일단 1세대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에 비해 허옥녀, 오홍심, 한룡무, 김정수와 같이 대체로 1940-50년생 세대는 그 기억과 관련된 묘사의 구체성이나 실감 전달력 면에서 앞 세대에 비해 다소 약화된 느낌을 준다. 그 본적(本籍)의 유무를 넘어 제주에 대한 문학적 입장을 표명했던 시인의 작품을 ①, ②, ③ 측면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제주 섬에 대한 그리움-오상홍의『산이여, 한나여』에 수록된「안고싶은 내고향」,「파도소리여」,「별방진」,「서느렁」,「산이여, 한나여」, 한글시지『종소리시인집』에 수록된, 오상홍「차귀도」,「성산일출봉」,「말과 실천」: 고봉전의 『제일 고운 꽃』에 수록된「가고 싶은 내 고향」,「보름달」,「제주섬」「제주도는 내 고향」 : ② 제주의 한과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 김학렬의 『삼지연』과 『아 조국은』에 수록된「화산」,「연단에 서신 어머니」: 강순의 『강순시집』에 수록된「한나산」: 허남기의 『조국의 하늘 우러러』와『조국에 바치여』에 수록된「노래」,「만가-미제국주의 장송곡」,「남녘땅에 눈이 내린다」, 「우리는 기억한다」,「조선겨울이야기(서사시)-6. 목포시집」: 김윤호의 『내고향』에수록된 「돌과 바람과 그리고…」 : 김태경의 『보람찬 나날』에 수록된「당이여 당신에게 최대의 영예를 드립니다」,「한나산」: 박산운의 『내가 사는 나라』에 수록된「긴긴 세월 물도 불도 헤치며」: 고봉전의『애기별은 빛난다』에 수록된「제주해협」: ③ 통일 열망- 김아필의 『무지개 다리』에 수록된「무지개다리」: 리방세의 『하얀저고리』에 수록된「그네놀이」: 고봉전의 『제일고운 꽃』에 수록된「통일의 화폭」,「통일팽이 팽팽」,「그네뛰기」,「기러기」

5) 소명선은 제주 섬이 '고래의 탐라국이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 거주민들로 하여금 한반도로부터 격리, 고립의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라고 보았는데(소명선,「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동북아문화연구』1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659면) 필자는 그 고립적 성격이 그들의 시에 유년의 퇴행적 시간과 증폭되면서 '낙원 표상'을 생산시킨 것이라 보고 있다.

발자국 새겨 있는곳

-고봉전, 「가고 싶은 내 고향」 부분

내 고향 성 / 별방진 // 널 그리워 / 언제나 불러본다 / 별방진 // 너 우에 올라서서 / 일망천리 수평선우에 / 서서히 솟아오르는 / 붉게 타는 아침해 / 보고싶구나 // 허다가 / 한나산을 바라보노라면 / 어린 가슴에다 / 하늘도 날고싶은 / 꿈세계를 날던 / 그때를 어이 잊을소냐 // 내 마음속에 사는 / 너는 나의 벗 / 그리운 별방진아 / 기어이 너를 찾으리

-오상홍, 「별방진」 부분

재일제주인 고봉전과 오상홍 두 시인의 작품은 본 연구의 '핵심 텍스트'이다.[6] 시에 나타난 제주(濟州)의 "삼양"과 "별방진"은 '고향의 지명'이자 '놀이의 공간'에 다름 아니다. 그곳은 몸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간으로 읽혀지고 있다. 문예동의 여타 시인의 시라면 향수어린 그곳이 이내 공화국의 담론을 작동시키는 공간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향수(鄕愁)시를 많이 써 온 류인성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정든 고향아 / 다시 한번 생전에 가고싶어서 / 다시 한번 고개길에 서고싶어서 / 으스름 밝아오는 새벽거리를 / 합작, 단결, 통일의 삐라를 들고 / 동포를 한집한집 찾아간다네"(「고향길」.『고향』, 문예동, 1983)와 같은 경화(硬化)된 체제 언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문예동계 시인의 고향 시편

6) 고봉전(高奉淀, 1926. 4. 21생~2007) 제주도 제주시 삼도리 삼도리에서 출생, 1944 전라남도 광주사범학교 졸업, 渡日, 1952 와까야마현 유아사조선소학교,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원, 교무주임, 1962 총련 히가시오사까본부 선전부 부부장, 1963 나까오사까초중급학교 교장, 1982.4 문예동오사까지부 상임, 1982.4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원, 시집『애기별은 빛난다』(문예동오사까지부,1987), 동요동시집『해님궁전』(OSI,1998)
오상홍(吳常弘,1925.9.12생) 제주도 북군 구좌면 하도리에서 출생, 본적 동상, 1952 주오(中央)대학 경제학부 졸업, 1952 효고(兵庫)조선중고급학교 오사까조선고급학교 미나니오사까(南大阪)조선초중급학교교원, 교장, 1961 조선신보사 편집국 기자, 1974.3 문예동 도꾜지부 위원장, 고문, 시집『한이여, 한나여』(문예동중앙,1987)

들에서도 북측의 체제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그리움의 내질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 인용시와 같은 순수 기억의 '낙원 공간'을 보여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재일제주인 고봉전의 시「가고 싶은 내 고향」에선 "지평선우에 / 서서히 솟아오르는 / 붉게 타는 아침해"와 "하이얀 모래밭에 딩굴던" 희락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 공간은 "소꿉시절 내 발자국 새겨 있는곳"에 다름 아니다. 이는 두고 온 고향을 공화국의 체체 언어로 번역해 내는 문예동의 내러티브를 이탈하고 있다. 어린 시절 섬에서 받은 '몸의 쾌락'은 오상홍의「별방진」에서도 한결 선명히 나타난다. 그 기쁨은 "어린 가슴에다 / 하늘도 날고싶은 / 꿈세계를 날던 / 그때"의 기쁨이다. 그것은 다시 이 시인의 다른 시에서 "내고향 샘물터 / 이름도 좋아라 / 서느렁 / 서느렁 // 주르륵 흐르는 땀을 / 확확 쓸며 / 옷을 벗어던지고 / 첨벙 빠져들어가면 / 아이구 서들타 "(「서느렁」,『산이여 한나여』) 등과 같은 활홀경의 내면으로 변주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제주는 두 시인에게 체성화(體性化)된 공간이었기에 정념의 파토스(pathos)가 흐르고 있다. 두 시인의 시작품 제목「안고 싶은 내고향」,「파도 소리여」,「별방진」,「서느렁」,「가고 싶은 내 고향」,「기러기」 등만을 검토하더라도 상기의 특성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재일제주인의 시가 '문예동의 담론'과 연동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살의 기억 및 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②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몸의 성소(聖所)로서의 제주 섬이 그에로의 귀환을 막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응징' 욕망으로 이어지는 대목과 관련된다. 1948년 발생한 4.3사건(1948년 4월 3일~1954년 9월 21일)이 '냉전이데올로기'의 참극이었다는 점에 큰 이의를 제기할 논자는 없을 것이다.[7] 적어도 제주민(濟州民)에게 있어서 4.3은

7) 권기숙은 4.3사건을 6.25때보다 희생자가 더 많았던 대략 학살사건의 하나라 말하고 있다. 아울러 희생자의 대부분이 민간인이었고 아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무차별적 집단 학살이 자행됐던 사건이었다고 보고한다. 그 과정엔 '우리'와 '적'(그들)을 구별하는 '배제의 원리'가 작용하였는데 그 원리는 '양민'과 '폭도'의 경계 짓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5.18 군사정변의 논리를 닮아

그 참혹했던 시간의 원체험을 가능케 한 사건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때문에 ②의 측면은 그 분노 어린 기억과 분노를 드러내는 데 대부분 할애된다. 이와 관련하여선 주로 4.3의 사망자가 흘린 '피'(원한)의 모티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 '피'는 참극의 기억 속에서 바다를 붉게 물들인다.

> 일제를 대신하여 / 십자가 휘두르며 기여든 / 흉악한 양키놈들 / 독사처럼 날름거리는 추악한 몰골의 성조기가 / 거만하게도 그대를 건너 / 내 고향 제주도를 여지없이 휩쓸었노라 / 또다시 랑만의 바다 제주해협엔 / 해녀의 애끊는 휘파람 소리마저 사라지고 / 들리는건 서글픈 녀인들의 / 흐느낌소리뿐! // 은은히 들려오든 사공의 배노래도 / 이제는 통곡으로 변하였으니 / 아— 오늘의 제주해협은 / 지옥의 기아해협 / 잔학한 미제의 칼날에 / 산산이 쪼각난 제주해협이여 // 사랑하는 내고향 제주도 / 출렁이는 제주해협이여 / 너는 기억하리라 4.3의 붉은 피가 / 그대를 붉게붉게 물들이며 / 인민들의 원한이 그대의 천길 물속까지
>
> -고봉전,「제주해협」부분

있다. 한번 자행한 학살은, 그 자손의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학살로 이어지고, 그것은 가족학살, 마을학살 등의 형태로 퍼져 나가게 됐다. 그것은 "삼족을 멸한다"와 같은 기존 담론의 무의식이 작동하면서 문화적 처벌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정당성을 얻어나갔고, 그 폭력은 모방되었다. 그리고 그 학살은 이승만 국가 체제에 의해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돼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기숙,「대량학살의 사회 심리: 제주 4.3사건의 학살과정」,『한국사회학』36집 5호, 2002, 172-194면) 이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것은 그 실제 학살을 주도한 세력이 미군 外에도 서북청년단과 같은 토벌대라는 점이었고, 피해자로서의 성격이 매우 컸던 남로당 계열의 무장대 또한 그 학살의 주체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4.3은 토벌대와 무장대 간 헤게모니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양측 주체에게 죽임을 당한 양민의 비극에 연구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는 4.3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황적 심급 파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동계 재일동포 측의 4.3 시각은 북측이 그것을 보는 시각을 상당 부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놓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4.3 사건의 배경으로서 시종일관 미군정이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데 대해 제주도민이 강력히 투쟁했던 상황을 지적하는 단순한 논리를 펴왔고"(박찬식,「북한의 제주 4.3사건 인식」,『한국근현대사연구』3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176면) 그 학살 주체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었을 뿐 남로당의 사회주의 세력은 전혀 아니었다고 보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 재일제주인 시의 의식 또한 많은 부분 그 체제 담론 속에서 작동해 왔다는 점도 간과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인용 시에선 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독사처럼 날름거리는 추악한 몰골의 성조기가 / 거만하게도 그대를 건너 / 내 고향 제주도를 여지없이 휩쓸었노라”로 나타나는 구절이 그것을 예증한다. 그 피해의식은 다시 북측의 담론과 결합하면서 “너는 기억하리라 4.3의 붉은 피가 / 그대를 붉게붉게 물들이며 / 인민들의 원한이 그대의 천길 물속까지” 등의 적개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4.3의 붉은 피”가 “그대를(인민들을:필자) 붉게붉게 물들이”는 것은 그 저항이 공화국(북측)의 언어에 의해 작동하면서 ‘대남 혁명의 논리’[8] 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억의 핏물로 끓어오르는 ‘제주 섬’의 ‘물결’이 총련이 주창하는 혁명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원한”과 관련된 ‘피-붉음’의 의미선(意味線)은 한라산의 ‘화산’(불)의 상징을 통해 응징의 ‘불’로 이동한다. 일례로

> 산이여, 한나여 불을 토하라 // 혁명의 성산인 백두의 줄기따라 / 지리산 태백도 불길올려 부른다 / 슬기론 주인들 갈라져 몇해더냐 / 한집에 살자는 몸과 맘 불같구나
>
> -오상홍,「산이여, 한나여」부분

에 나타난 ‘불’의 이미지를 주목해 보자. 문예동 그룹에서 미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 및 적대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그 이미지란 것은 상당히 천편일률적 표상력 속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일제주인의 시에선 그 같은 내면이 ‘한라산’이란 공간 이미지의 개입으로 한결 더 설득력 있게 처리해 낸다. 인용시「산이여, 한나여」에서 핵심적인 시어는 ‘불’과 ‘한집’일 것이다. ‘불’이 쓸고 간 곳에 ‘한집’을 세우자는 논리는 통일의 염원을 추구하는 그들의 의지임에 분명하

8) 일례로 ‘4.3의 봄’은 남측의 ‘4.19의 봄’과 연결되면서 혁명이 완성될 미래를 드러내기도 한다. 일례로 제주 태생 시인 오상홍의『산이여 한나여』(1987)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피흘리며 싸워 이긴 1960년 4월 19일, 그 감격과 흥분으로 밤새는줄 모르게 스스로 펜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언술된 자서(自序)가 그 예이다.

다. 그것은 “혁명의 성산”이 뿜는 화산(불)의 정화력이 결국 한민족 통일의 내일을 견인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북측의 체제 언어에 기반된 위와 같은 통일 담론이 재일제주인의 그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통일 욕망을 도출해 내는 네이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재일제주인이 욕망하는 ‘통일’이란 것은 ‘북측의 네이션’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한민족의 통합적 네이션’에 근거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 보는 일이 남아있다. 문예동의 일반 시인의 경우 그것은 북의 내셔널리티에 기반을 둔 경우가 압도적이다. 재일제주인 시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엔 그 이외의 가능성이 예민하게 타진될 수 있는 지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남측과 북측의 경화된 이데올로기를 균열시키는 ‘섬-의식’의 공유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 무의식을 소유한 북측, 남측, 재일 제주인이라는 다자(多者) 주체가 모여드는 지점 속에서 그 가능성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학사의 문제와 관련된 ③의 측면이다.

4. 재일제주인 시와 통일문학사

본고는 통일문학사의 문법이, 한민족 주체간의 ‘시선의 공유의 지점’ 속에서 생성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견지한다. 무엇보다 재일제주인의 시에서 통일문학사의 전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남측과 북측, 총련 시인의 시를 연관 고찰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주 섬 관련 의식/모티프’를 공유하는 시인 주체들에 대한 응시이다. 이 작업은 ‘재일(在日) 제주인’의 주체를 개입시킴으로써 통일문학사의 논리를 이전보다 풍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체의 강역 또한 ‘제주인 일반’으로까지 확산시켜 남북 간 이데올로기를 완충시킬 가능성을 도출해 낼 것이다.

재론하는 바지만, 통일문학사와 관련한 제주인 주체들 간의 생성적 통섭은 비경계인 주체와 경계인 주체가 소유한 '네이션' 의식의 통합에 다름 아니다. 각각 '국가 네이션'을 지향하는 ㉠'북측의 제주인'과 ㉡'남측의 제주인'이 비경계인적 주체라면, ㉢'재일제주인'은 '조국/본국/섬'이라는 매우 유연한 경계적 주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일제주인이 추구하는 네이션은 '국가 내셔널리티를 연화(軟化)'를 가능케 할 축(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9] 그것은 '제주'라는 섬을 몸으로 체성화한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다. 재일제주인의 의식을 하나의 축으로 삼는다면 '제주'에 대한 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다자간 민족 주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장이 열리게 된다. 이는 '경계인'(연화된 네이션의 주체:재일제주인)의 사유와 '비경계인'(국가 네이션의 주체:북측 제주인, 남측 제주인, 또는 '제주의식을 소유한 비제주인)의 사유 간의 통합이다. 이는 후자의 비경계인적 주체를 전자의 경계인 주체의 상상력과 관련시켜 일단 연동시켜 보고[10], 그것을 순차적으로 '한 민족의 네이션' 속으로 풀어가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일례로 재일제주인의 시와 '월북시인인 조규창의 「제주도 빨치산들에게 영광을 드린다」와 같은 작품들, 아울러 남측 제주인들 중 4.3의 진상규명을 추구한 김수열이나 어린 날의 4.3 기억을 더듬는 문충성, 김용해의 시, 반제 항쟁의 측면을 강조한 김관후의 시, 민중항쟁의 측면을 강조한 강덕환, 김경훈, 김수열, 문무병, 김경홍 등의 시'[11] 등을 교

9) 최종환, 「민족문학의 새로운 기반 정초를 위한 재외한인 문학의 가능성-재일 조선인 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07면.

10)이와 관련된 한 예는 제주의 슬픔에 대해 쓴 남측 시인 이산하의 '서사시' 「한라산」과 그 상상력에 동조를 보내는 문예동 측의 시선의 섞임이다. 이것은 제주의 모티프를 공유하는 남측-재일동포측-북측 주체 간의 공명을 가능케 해줄 수 있다.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이 혁명의 산하에 / 싹둑 잘려나간 손가락들이 아직도 펄펄 살아 뛰는 / 붉은 피가 있어 / 농약 먹은 가슴으로 타오르는 싯붉은 피가 있어 / 민족해방의 불꽃으로 / 조국통일의 불꽃으로 / 이 헐벗은 굶주린 노동자 농민들의 여윈 손들이 / 마침내 /역명의 숲을 이룰 때까지 / 저 간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을 뜨고 /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한 조국의 영혼들에게 / 적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동지들의 원수를 갚아주자!!"로 나타난 「한라산」의 내면에 대해 문예동의 시인 박산운은 '서정서사시' 「10월의 불길」에서 "4.3의 한이 서린 학살의 숲 / 발 살이 끊어지는 아픔을 참아가며 / 젊은 시인 리산하가 오른 / 한나산마루가 핏빛으로 탄다"라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박산운은 문예동측과 북측에서 핵심 위상을 차지한 시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명은 -완전한 이데올로기의 완충지점엔 다다르지 못한 느낌이지만- 한반도의 통일시사가 북측을 향하여 내밀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악수이다.

직시키는 시도가 그것일 수 있다. 이에서 더 확대할 경우 한 축을 재일제주인으로 잡은 후, 그들 상상력과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신동엽 등과 같은- 비제주인의 시와 연결 지어 보는 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재일제주인의 시에서 통일문학사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면 그와 관련된 실마리부터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재일제주인 내면의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남측 제주인 및 그 의식을 추체험하는 남측 시인의 내면을 공명시켜 볼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기억의 협응

'기억의 협응'은 재일제주인과 남측제주인 간에 공명하는 사적(史的) 문맥을 의미한다. '섬사람'의 실존을 고려할 때 그것은 4.3 트라우마의 확인·교환과 관련된 것이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섬'의 참극은 두 주체 간에 ① '사실적 국면'이나 ②'상상적 국면'으로 교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가 시인의 아픔이 진하게 밴 국면이라면, 후자는 낙원이었던 섬의 원형성과 관련된 국면이다.

먼저, ① '사실적 국면'의 측면부터 살펴보자. 4.3의 후유증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그것이다.

①

하늘 아래 류다른 / 절승이라 이름난 / 서귀포 바다가에 / 억년 변함 없이 떨어지는 / 정방폭포 // 어린 시절 / 가슴에 안고 / 그리워 하던 네 앞에 / 반세기에 여라문 해가 지난 / 오늘에야 섰노라 // 꽃들도 다 웃는 / 4월 초순에 / 저 수평선 너머로 /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은 / 잔잔한 파도 일구며 / 내 함께 춤추게 하네..중략...력사의 슬픔도 안았느냐 / 일제의 쇠사슬에 매여 울던 그 시절 / 부

11) 나간채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224-225, 233-235면.

르던 《서귀포 70리》 / 4. 3의 통곡소리 들으면서도 / 술잔 나누며 불렀노라

-오상홍,「정방폭포 앞에서」부분.

떠도는 구나 / 4.3 사건 때 / 시퍼런 죽창에 찔려 시퍼렇게 / 눈떠 죽어간 귀신들이 / 南門 밖 // 캄캄한 거리를 / 삼십 년이 넘도록 / 캄캄하게 떠도는구나 / 한마디 말도 정처도 없이 / 무엇이 죽을 罪인지도 모른 채...중략...오늘밤도 / 캄캄하게 / 밤이 새도록 / 우리 하늘 속을 시퍼렇게 / 시퍼렇게 우리 가슴속을 떠도는구나.

-문충성,「반딧불」부분.

두 편의 시는 재일제주인과 남측제주인의 작품이다.「정방폭포 앞에서」가 화사한 4월의 봄날 찾아 온 기억의 트라우마를 보여준다면, 「반딧불」에선 캄캄한 밤에 반딧불의 모습으로 깜박이는 죽은 이들의 원혼을 띄워 보인다. 앞 시에 나타난 " 《서귀포 70리》 / 4. 3의 통곡소리"가 뒤 시에서 "삼십 년이 넘도록 / 캄캄하게 떠도는" 원혼들과 자연스레 연동되는 것은 '본국 주체'와 '현해탄 너머의 민족 주체' 간의 기억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협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북측 지향적 네이션과 남측 지향적 네이션 간의 협응이다. 더구나 "무엇이 죽을 罪인지도 모른 채" 죽어간 민중의 아픔을 곱씹는 제주인의 음성은 결과로서의 분단 모순을 암시시키며 통일문학사의 한 가능성까지 읽을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제주 섬의 트라우마를 ②'상상적 국면'으로 호출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이는 어떤 면에서 그 트라우마의 '극복'의 문맥과 관련된다. 유년기의 낙원이 훼손된 것을 본 제주인들이 그 복원 욕망을 드러낸 경우이다. 여기선 '제주 섬'을 유년의 '희락 공간'으로 변주시키려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즉, '놀이'가 존재했던 낙원이 '화탕지옥'으로 변해버려서 그 원본성(原本性)을 복구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일례로 '차귀도'를 통해 그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제주인에게 '차귀도'는 한경면 고산 리에 딸린 실제 지명이면서도 사라진 전설의

섬, '이어도'의 낙원성을 연상시키는 공간이다. 김관후 또한 제주인의 낙원의식을 '가나안을 향하는 의식'이라 언급하고 그것을 '이어도 찾기'의 노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2]

②

돌아올수 없다는 그 섬 이름 / 차귀도 // 제주도 서쪽 바다 / 수평선을 서서히 내려가는 / 둥그런 불덩어리 / 그 장관을 안은 / 차귀도...중략... 돌아올수 없다지만 / 나는 찾아 가리라

-오상홍,「차귀도」부분.

홀어멍 마음비듯 / 와도(臥島) 앞바다 / 썰물이 한 나절 밀려나갈 때 / 낚시 드리우고 할아비 적 / 잃어버린 꿈을 낚아 올리나니 / 낚시갔다 영 돌아오지 않는 님 / 부르다 부르다 굳어진 / 절부암(節婦岩)이야 저쪽에 있지만 / 바람도 자는 날 / 님 부르는 목소리도 자고 / 너무 화안히 고요하구나 / 맨발로 제주(濟州) 바다를 건너 / 이어도에 가고 싶다

-문충성,「차귀도」전문.

위의 두 시는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낙원'을 빼앗긴 제주인의 회한을 드러낸다. 그 회한의 저변엔 '부재의 대상'을 복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 내면은 한편의 시에선 "돌아올 수 없는" 전설의 섬을 찾아가려는 갈망으로, 또 한편의 시에선 대체물인 "이어도"의 환상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는 위의 두 제주인의 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배치가 북측이나 문예동 시인들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노→화산→피→불꽃→혁명'으로 이행되는 북측이나 문예동 이데올로기의 연산식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크게 보

12) 김관후,「아버지의 긍정에서 출발한 서사적 서정성」, 김경홍의『인동꽃 반지』해설, 대한, 1999, 114면.

아서 '분노'가 '혁명'으로 이행되는 것이 문예동측 의식의 미래적 계기라면, 제주인들의 작품들은 상상적 '낙원 공간'으로 자신을 퇴행시키고 있다. 오상홍과 문충성의 시에 나타난 "이어도"와 "차귀도"의 퇴행 공간이 그 낙원의 상상적 지형을 보여주는 한 예다. 독백형 언어가 풍기는 페이소스는 고통의 기억과 내면의 결핍을 해결하려는 주체의 간절한 염원에 닿아 있는 것이다.[13] 문충성의 시에서 " 제주(濟州) 바다를 건너 / 이어도에 가고 싶다"는 언술 또한 트라우마의 시간을 넘어서 그리운 섬의 원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기 때문이다. 재일제주인에의 욕망이 북측의 체제 언어에 의해 견인돼 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①과 ②의 문맥을 참조할 때 그들 시가 때때로 문예동의 언어의 장을 탈주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곳이 문충성과 같은 남측 시인의 시와 연결될 수 있는 정신의 공유지대를 마련하는 지점이다.

2) 욕망의 공유

재일제주인의 시의 통일담론은 남측과 북측을 아우르는 '국토 통합적 상상력'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한라산'의 표상성은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남측의 여타 시인들의 시와 화응(和應)하는 하나의 자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의 한라산은 화산의 화염이 표상하는 '분노'보다는 남과 북을 잇는 '정신의 포용성'으로 기능한다. '4.3 기억의 협응'이 '제주인들 간의 대화'적 측면이었다면, 이와 관련된 '국토 서사'는 한반도의 전 민족을 끌어안는 '형제애적 상상력'의 부름켜를 형성한다. 때문에 이 욕망 공유적 측면은, 남북 간 통일문학사적 교계(交界)의 길

13) 서귀포 태생 시인 김경훙은 제주의 고향 마을의 슬픔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열여덟 꽃다운 시절 / 배운 것은 노래였다 / 부르면 부를수록 서러운 노래 / 내 십대를 길렀다 / 헤어짐이 우리의 뜻일 수 없는 섬에서는 / 만남 또한 우리의 뜻일 수 없는 것 / 돌아오마는 약속은 / 영영 그리움에 머물러 / 열여덟 꽃다운 시절은 / 눈시울 붉히는 섬이었다.", 김경훙, 「섬·1」, 『인동꽃반지』 , 대한, 1999, 22면.

을 어느 정도 닦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박달팽이 / 잘도 돈다 팽—팽— / 회초리로 힘껏 치면 / 날아 갈 윙—윙 // 일본땅을 뛰어 올라 / 현해탄을 훌쩍 넘어 / 우리 고향 제주섬 / 한나산에 올라 보자 // 그 다음엔 어디 갈가 / 평양으로 가야지 / 백두산에 높이 올라 / 금수강산 안아 보자

-고봉전,「통일팽이 팽팽」부분.

봄은 /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 오지 않는다 // 너그럽고 / 빛나는 / 봄의 그 눈짓은, / 제주에서 두만까지 /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중략...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 눈 녹이듯 흐물흐물 / 녹여버리겠지

-신동엽,「봄은」부분.

첫 시「통일팽이 팽팽」에서 눈에 띠는 것은 '한라산'과 '백두산' 간에 작용하는 의미상의 교섭이다. 먼저 "한라산"의 정기가 "평양"과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북측에 대한 지향성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시엔 민족과 국토에 대한 애정이 안받침 되어 있다. "우리 고향 제주 섬"으로 드러나는 그리움의 서정과 "손을 잡"는 것에서 느껴지는 육친애가 그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라산'은 "금수강산"이라는 전국토적 기표의 작동을 수행시키는 핵심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라는 근원적 욕망 공간에 대한 향수와 육친애가 '제주'에서부터 '한라'까지를 '온몸의 상상력'으로 안아내고 있는 것이다.

신동엽의 시「봄은」에 나타난 "제주에서 두만까지"의 상상력 또한 「통일팽이 팽팽」의 상상력에 닿고 있다. 통일의 완성태인 "봄"은 위의 고봉전이 보여준 기다림의 사유와 형제애적 욕망, 그것이기 때문이다. "강산을 뒤덮은 미움의 쇠붙이"를 녹이는 것을 "제주에서 두만까지" 민족의 가슴에 흐르는 사랑이라 가정한다면 그 사랑은 다른 재일제주인 오상홍의 시에서 "이젠 / 손을 잡고 / 백두산에

올라 // 하늘을 안고 사는 / 천지와도 같은 마음 / 온 천하에 노래하세 // 이젠 / 손을 잡고 / 한나산에도 올라 // 동서남북 일망천리 / 창해와도 같은 마음 / 신명나게 춤을 추세" (오상홍,「백두산에도 한나산에도」)와 같은 또 하나의 국토 통합적 상상력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상상력은 다시 다른 재일제주인인 홍윤표의 시에서 "같은 땅에서 / 같은 물로 자란 꽃들 / 꽃이 아름다운 빛을 잃기 전에 / 다시 만나자 // 통일이란 / 리별의 눈물을 / 닦는것이 아니냐 // 다시 만나자 / 같은 민족이면서 / 북의 사람이여 / 남의 사람이여(「다시 만나자」)[14]라는 언술로도 변주된다. 이러한 내면의 파토스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 오작교가 없어도 / 노둣돌이 없어도" (문병란,「직녀에게」(『땅의 연가』, 1981)를 쓴 또 다른 남측 시인의 내면과도 다시 공명하고 있다.[15]

5. 맺음말

총련계 문예동 시인의 작품 간에 큰 변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재일제주인의 시는 재일동포 시문학의 핵심적 분별지임에 분명하다. 일찍이 변방적 자의식을 지녀온 재일제주인은 민족을 '조국/본국'보다는 '조국/섬/본국'이라는 한결 경계인다운 시선으로 보아냈다는 점에서 적어도 1990년대까지 북측의 체제 담론을 추종해 온 '문예동 문학'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능성을 보여준

14) 문학 정신면에서 볼 때 '홍윤표'의 시는 재일동포 김길주의『이쿠노 아리랑』에 필적하는 총련측의 작품이다. 고명철은『이쿠노 아리랑』을 "4.3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언어이자, 4.3을 현재화하는 언어를 보여준 작품"으로 평했는데(고명철,「4.3 문학의 갱신을 위한 세 시각」,『한민족문화연구』25, 한민족문화학회, 2008, 105면) 홍윤표는 그 같은 화해의 열망을 가장 문학적 어법을 통해 보여준 -문예동 내 몇 안되는- 재일제주인 시인 중의 하나이다.

15) 문병란은 문예동 시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남측 시인의 하나로서 재일-남측-북측 간 통일문학사의 구성에 매우 주요한 시인이다. 일례로 총련의 문예기관지『문학예술』102호(1992.봄호)엔 변재수의「광주의 시인 문병란」이란 비평문이 발견된다

다. 다소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견인돼 온 남측과 북측의 국가 내셔널리티를 완충시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약술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의 시엔 '제주 섬에 대한 그리움'과 '4.3의 기억'이 각기 나타나거나 혼성화되어 있다. 그것은 섬 무의식과 관련된 '낙원상실/낙원복귀'라는 그들만의 특유한 상상력으로 가동되는 것이란 점에서 문예동의 경화된 언어장 속으로 그대로 환원되지만은 않는다. 제주 섬에 대한 그들의 실존적 기억과 원형질적 그리움의 내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재일제주인의 시를 '재일제주인의 시'로 만드는 점이 '한라산'의 표상성이란 점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산의 위용'이 수령의 혁명교시의 숭고성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화산(불)'이 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와 연동되는 점이 그것이다. 반면 '한라산'의 표상은 통일과 관련된 '국토 통합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언술이 빈출되는 점은 남측 민중시인의 내면과도 시사적 연결성을 타진케 하는 지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학, 역사학 중심으로 다루어진 4.3의 주제를 경계인적 주체가 보여주는 문학 상상력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된 학제간 연구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3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의 문제를 '시적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미력이나마 우리 역사의 4.3 부채를 해소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후 재일디아스포라 문학과 본국 문학 간의 시사적 연결점을 모색하는 데에도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재일 4.3 시'의 시사적 문맥을 남측의 60년대 이후의 리얼리즘론과의 연속성 속에서 거양해 보는 일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일디아스포라 문학과 한국문학은 서로를 경유하면서 완성된다는 점, 그리고 그 공명성(共鳴性)이 통일문학사 및 한민족통합문학사의 계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재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참다운 문학사가 '다원주의'를

확인시키는 문학사라 한다면 재일제주인의 한글 시는 그러한 요건에 잘 부합되는 텍스트이다. 재일제주인 시연구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고의 시론(試論)의 위상을 넘어 4.3을 소재로 한 남측 작품들과의 상호 연계성을 더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4.3 외의 다양한 소재 발굴을 통해서 남측과 북측, 재일 주체 다자간의 소통을 추구케 하는 인식의 지점을 발견해 내야 한다.

▶ **핵심단어(Key-words):** 재일제주인(Cheju people in Japan), 문예동(Munyedong), 섬(island), 희락(joy), 트라우마(trauma), 기억(memory), 욕망(desire), 제국주의자(imperialist), 이데올로기(ideology), 통일(union)

■ 필자: 경희대 겸임교수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상현,『재일한국인-재일동포 100년사』, 한민족, 1988

카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譯,『재일조선인운동』, 현음사, 1994.

『문학예술』(창간호~105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60.01~1993.봄

2. 단행본

『종소리시인집』, 종소리시인회, 2004.

강순,『강순시집』, 강순시집발간회, 1964.

고봉전 ,『제일고운 꽃』,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고봉전,『애기별은 빛난다』, 문예동오사카지부, 1987.

김경홍,『인동꽃반지』, 대한, 1999.

김아필,『무지개다리』, 조선청년사, 1991.

김윤호,『내고향』, 문예출판사, 1987.

김정수,『꿈같은 소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김태경,『보람찬 나날』, 문예동중앙상임위원회문학부, 1963.

김학렬,『삼지연』, 조선대학교, 1979.
나간채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리방세,『하얀저고리』, 문예동문학부시분과위원회, 1992.
문병란,『땅의 연가』, 창작과 비평사, 1981.
문충성,『방아깨비의 꿈』,문학과지성사, 1990.
박산운,『내 고향을 가다』, 평양출판사, 1990.
박산운,『내가 사는 나라』,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오상홍,『산이여 한나여』, 문예동도꾜지부문예지《산울림》 편집위원회, 1987.
허남기,『조국에 바치여』, 평양출판사, 1992.
허남기,『조국의 하늘 우러러』, 문예출판사, 1980.

3. 논문 및 기타

강영기,「문학에 나타난 '재일제주인' 인식 고찰」,『한일민족문제연구』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강영기,「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현대문학이론연구』3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고명철,「4.3 문학의 갱신을 위한 세 시각」,『한민족문화연구』25, 한민족문화학회, 2008.
권기숙,「대량학살의 사회 심리: 제주 4.3사건의 학살과정」,『한국사회학』36집 5호, 2002.
김관후,「아버지의 긍정에서 출발한 서사적 서정성」,『인동꽃 반지』시집 해설, 대한, 1999.
김정수,「일본땅 한끝에서」,『꿈같은 소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김종회,「在外 同胞文學의 어제·오늘·내일」,『어문연구』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김학렬外,『21世紀 東北亞 韓國文學硏究의 現況과 展望』, 숭실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2
김환기,「재일 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일본학보』69, 한국일본학회, 2006.
박찬식,「북한의 제주 4.3사건 인식」,『한국근현대사연구』3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소명선,「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동북아문화연구』1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스나미 케스케,「'죽음의 섬' 탈출해 일본에 온 '제주'의 애환」,『민족네트워크』, 2008,5.
최종환,「민족문학의 새로운 기반 정초를 위한 재외한인 문학의 가능성-재일 조선인 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한국일보』, 1968.2.4.
『녹두서평』 창간호, 1983.3.

<Abstract>

A study of poem of Che-Ju people in Japan

Choi, Jong-Hwan

This study explores into the poem of 'Che-Ju people in Japan' under the theme of 4·3. On that scor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Korean poetic literature written by Che-Ju poets in Japan. By and large, their works are prone to susceptibility mingled with irresistible yearning for Che-Ju island and with trauma involved in 4.3 in the concrete. In this context, their poetic works reveal the narrative of the paradise of childhood days and the execration against imperialists at once, because their lives in the island came to ruin miserably by Lee Seung Man and the allied forces of U.S.. And therefore their works were servile to the ideolog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Munyedong called as embassy and legations abroad of it. Nonetheless, their works don't run to go off the deep end into North Korea or munyedong's discourse on account of self-consciousness of Che-Ju people. First and foremost, They showed their anger, grief and the possibility of communist revolution by the symbol of 'volcanic fire'. In addition, the symbol of 'Hallasan' gave vent to the intense aspirations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ir poem.